

삼성전자

「아산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 파문던 폐가전품 재활용 길 열려 -

97년 4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12,600평 부지에 총 211억을 투자하여 착공, 98년 5월 준공된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연간 30만대(18천톤)의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리사이클링하여 철

1만톤, 프라스틱 5천톤, 구리·스텐레스 1천톤, 알루미늄 5백톤 등을 생산하게 된다.

특히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폐가전제품을 90% 이상 재활용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



며, 국내에서 현재까지 회수할 수 없었던 냉장고의 단열재(폴리우레탄)의 후레온 가스(CFC-11)까지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첨단의 폐가전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냉장고 단열재의 후레온 가스까지도 완벽하게 회수할 수 있는 최첨단 폐가전 종합 리사이클링센터

동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냉장고 냉매용 후레온 가스(CFC-12)와 기름을 추출하여 분리하는 설비, 폐가전제품을 작게 파쇄하는 파쇄기(SHREDDER), 폴리우레탄 내의 후레온 가스(CFC-11) 회수 설비, 그리고 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소재별로 추출하는 선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레온 가스를 회수하기 위한 파쇄-선별-회수 공정은 밀폐된 UNIT 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CFC가 대기로 방출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국내는 물론,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필수조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95년 6월 「환경보존 약속」을 선언하고, 전담부서(그린물류팀)를 설치하여, 전국 22개 물류센터

를 중심으로 하는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선진형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의 활발한 녹색경영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센터의 준공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IMF 시대를 맞이하여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3사 공동사업 본격 가시화

한편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는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센터 건립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중부권, LG전자는 영남권, 대우전자는 호남권에 각각 리사이클링센터를 건립하여 공동 이용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금번 삼성전자가 중부권에 건립한 아산리사이클링센터는 그 첫번째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호남권 리사이클링센터의 건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폐가전 발생량은 96년 기준 연간 124만대(가전 3사 64만대, 지자체 53만대,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 7만대)로서, 오는 2000년에는

180만대로, 매년 약

5%의 증

폐가전제품을 저비용으로 분쇄해 소재별로 재활용하는 중남(아산)에 본점인 「아산 리사이클링센터」가 초저속 환경부정관 등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가 추세가 예상되는

데, 동 시설은 국내 폐가전 발생량의 약 25%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센터의 건립에 만족하지 않고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정보를 제품 설계단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가전제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